

KIA 소통·리더십 부재로 몰락 광주FC 불굴의 정신력이 일군 기적

‘격랑 2014’ 이슈 진단

⑥KIA의 추락과 광주FC의 승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은 올 시즌 광주 프로스 포츠에 딱 맞는 말이다.

◇2년 연속 8위, KIA.. 성남 ‘팬심’에 선동열 감독 퇴진 =V10의 화려한 역사를 품은 무등경기장의 마지막 해와 새로운 야구 역사가 시작된 챔피언스필드의 첫 해. 많은 의미가 담겨있던 2013·2014 시즌 KIA의 성적은 8위였다.

지난해 막내 NC에 팀을 잡았던 KIA는 올 시즌에는 한화와 꼴찌싸움을 하며 2년 연속 8위를 찍었다. 고향에 돌아온 선동열 감독은 3년 동안 5위-8위의 성적으로 일명 ‘588’이라 불리는 불명예스러운 숫자를 남겼다.

국보 투수이자 고단한 시절을 달래준 타이거즈 역사가 된 ‘선수 선동열’을 기억하고 있는 팬들은 병어리 냉기습 앞뎀 몰락하는 팀을 지켜 봐야했다. 새 집의 빈자리는 늘 어났고 KIA의 2014시즌은 조용히 끝이 났다. 하지만 그 게 끝이 아니었다. 묵묵히 작별을 기다리던 팬들에게 선 감독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졌다. 예상 밖 소식에 8위 KIA는 본인아니게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됐다.

선 감독의 편지에도, 프로의 냉정한 물을 위반한 재계약 약을 향한 성남 팬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리고 임의 탈퇴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통’을 얘기하던 선 감독은 지키지 못한, 기억할 수 없는 소통에 발목 잡히며 자진사퇴로 쓸쓸하게 고향을 떠나야 했다.

구단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벤치의 소통 부재로 종이호랑이로 몰락한 KIA는 ‘형님 리더십’의 김기태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해 맡을 알 수 없는 리빌딩 시대에 돌입하게

KIA, 2년 연속 꼴찌 싸움 선동열 사퇴

광주FC, 챌린지 4위에서 클래식 도약

됐다. ◇4위에서 승격까지...광주FC의 기적=레츠 직주는 아니었다. 승격을 이뤄낸 광주 FC의 2014시즌은 오히려 위기의 연속이었다.

남기일 감독은 공격 축구를 얘기했지만 광주의 창은 생각보다 무뎠다. 설익은 공격과 쉽게 흔들리는 수비에 더딘 결승이었다. 반면 클래식 리그에서 내려온 대전이 일찌감치 질주를 시작했고 K리그 올스타팀 안산 경찰청도 바쁜 겹겹으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중위권 밖에 머문 시간이 많았지만 수비가 안정되면서 중반 이후 광주의 추구에 사동이 걸렸다. 최종전까지 알 수 없던 3·4위 싸움이 전개된 가운데 광주는 고양전 0-0 무승부로 4위를 확정하며 클래식 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3위 강원, 2위 안산과의 단판 승부. 무승부시 상위권 팀이 승자가 되는 대회 규정상 ‘승’이라는 경우의 수밖에 없었지만 광주는 1-0과 3-0으로 준·플레이오프의 좁은 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마주한 경남. 안방에서 열린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광주는 골치아픈 벌이며 3-1로 승리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적지에서의 마지막 싸움에서 데고·임선영 두 주포의 갑작스런 부상에도 1-1 무승부를 이루며 승격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챌린지 리그 4위에서 클래식 리그 팀으로 도약한 광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린 선수들의 희색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프로 정신이 만든 기적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통진당 해산 결정 규탄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기초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모여 현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 법적 대응 하겠다”

통진당 6명 선관위 결정 반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들이 “국민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선관위와 지방의회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등록말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통진당 측이 “유행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6명의 비례대표의원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입장’의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의 결정은 물론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현재가 앞장 선 정치재판에 선관위가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은 지방의회 의원직의 비례대표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선관위 결정은 원천적 무효이며 불법행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와 선관위의 결정으로 도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점들이 사라지게 돼 안타깝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김재임 의원은 “현재의 왜곡된 판단으로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쳤다”며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현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방의원마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선관위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말소 통지서 오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등록 해지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광주시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 21명만 남아 ‘1당 의회’가 된다. 전남도의회는 무소속 4명과 새누리당 소속 1명 의원이 있다.

한편, 선관위 결정으로 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석은 2018년 지방선거로 새 의원이 뽑힐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령기 인구 감소 대비 학제 국제 통용성 높이고 여름방학 길어지면 취업·신학기 준비에도 좋아

정부 ‘9월 신학기제’ 도입 추진 왜?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을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9월 신학기제’란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제도로 문민정부 때 마련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검토됐다.

현 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으나, 막대한 비용 문제와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로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실

제로 출생자 수는 1995년 715만명을 정점으로 2000년 635만명, 2005년 435만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이월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긴 여름방학 중에 교원인사를 내고 신학기 준비도 할 수 있어 그동안 지적됐던 12~2월 ‘학사일정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확산함에 따라 다양한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과 해외교류나 인턴십 등을 통해 학생들이 내실을 다지는데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입학이 타월한 교수와 연구자, 학생의 국내 유입이 늘어 고등교육의 질도 향상된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통진당 前의원들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및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 “의원직을 상실

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운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그 지역(김기태·오병음·이상규 전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새로 뽑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제도가 있지 않느냐”며 “그 분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해산 결정된 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 09:00 ~ 20:00(연중무휴))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발일 1/1(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출발일	항공/피타야 5일	항공/피타야 5일
AAPF01-0K1	출생가 1,014,800원 ~	출생가 1,314,800원 ~
AAPF01-0K2	출생가 1,464,800원 ~	출생가 1,453,900원 ~

무안출발 설날 연휴 마카오 전세기

출발일	항공/홍콩 4일	항공/심천/홍콩 4일
CHPF05-NK1	출생가 1,170,000원 ~	출생가 1,170,000원 ~

지역별 추천 히니문 상품

상품명	출생가
HAN200-02C/KEE 오아후 6일	2,679,100원 ~
AXH101-A 몰디브 6/7/8일	3,901,200원 ~
CHPF05-NK1 마카오/홍콩 4일	1,170,000원 ~
CHPF07-NK1 마카오/심천/홍콩 4일	1,170,000원 ~
AAPF01-0K1 코사투리 6일	1,802,600원 ~
AAH109-1T1 코사투리 6일	1,802,600원 ~
PSH101-01A 시아판 4/5일	831,100원 ~

■여행상품 가격표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세차임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수익금, 여행자보험,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에게 가이드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여행: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이한 상황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진/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억 1천만원 가입